

전국
최초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백서



노후 소득보장으로
노후 생활 보장!!



익산시

전국 최초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백서**



노후 소득보장으로
노후 생활 보장!!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림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
시키는 마을자치연금의 희망을 담았습니다.



‘어울림’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마을자치연금을 위해
의기투합한 익산시와 공공기관, 마을을 상징합니다.



‘만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마을자치연금’을 표현했습니다.



씨앗 그림은, 마을자치연금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족한
노후보장체계를 보완할 희망의 첫 씨앗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CONTENTS

1 02 들어가는 글

‘100세 시대’,
수명 연장 꿈

03 성당포구마을 소개

익산 성당포구마을 소개

3 07 마을자치연금 소개

– 익산 성당포구마을
‘마을자치연금’ 소개
– 성당포구마을에 풍악이 울리던 날

25 협업기관 소개 및 소감

익산 마을자치연금 구성에
함께 한 기업 소개 및 인사말

5 39 추진성과

마을자치연금
제1호 마을이 운영되기까지

43 언론에서 본 연금사업

언론에서 바라본 연금사업

7 47 인터뷰

– 이장님의 ‘속터뷰’
– 마을 어르신들의 ‘경터뷰’

60 마무리 글

우리 농촌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100세 시대’, 수명 연장의 꿈

2018년부터 고령 인구가 생산인구를 넘어선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노령인구를 위한 복지정책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야 할 부분입니다.

세계 최장수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 역시 빠르게 나이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은 더 녹록치 않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향하는 청년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여기에, 노인 빈곤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자체와 정부가 해결해야 할 큰 복지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에 익산시에서는 ‘마을자치연금’ 제 1호 마을 준공식을 거쳐, 마을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수익금 50%와 태양광발전 수익금 50%로 형성된 이 자금은 미약하나마 마을공동체가 더 견고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익산시와 공공기관 그리고 마을의 합심으로 일궈낸 제 1호 마을자치연금

이 희망의 넋쿨은 익산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좀 더 촘촘한 복지 체계를 형성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울려 퍼질 행복의 메아리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성당포구마을 소개

익산 성당포구 마을은 바람개비 마을로 더 널리 알려진 익산의 관광 명소 중 한 곳입니다. 동화 같은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사시사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담한 마을 곳곳에서 시골의 푸근한 인심과 참 휴식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곳! 익산 성당포구 마을은 알면 알수록 더욱 빠져드는 농촌체험마을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성당포구 마을

금강변에 자리한 성당포구 마을은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 덕분에 농촌체험마을로는 최고 등급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금강변 아름다운 길을 배경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은 익산 성당포구마을의 인기 비결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과 숙소가 상시 운영되고 있어 누구나 부담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당포구마을의 마을공동체 사업 수익원

성당포구
마을체험

국궁 / 바람개비열차 체험 / 성당농악 배우기
/ 자전거 체험 / 할머니의 시골 밥상 체험 / 성당포구 워터파크
(여름철 진행) / 고구마 수확 체험 (9월 초~10월 말)



숙박

금강체험관 숙박시설(5인실, 12인실), 독채 숙박시설(4인실, 6인실) 총 11
개실 운영, 성당포구 캠핑장 (3월부터 11월까지 이용가능) - 몽골텐트와
나무 데크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상시 체험과 계절의 특성에 맞는 체험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 개인뿐 아니라 단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세미나실과 족구장,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용안생태습지와
금강강변길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마을에서 편안히 숙박하며 오롯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사시사철 이어지고 있고, 덕분에 마을의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수익의 50%는 마을자치연금의 소중한 재원이 됩니다.

성당포구 마을의 역사

성당포구마을의 서쪽에는 금강이 위치해 있는데 고려에서 조선 후기까지 세곡을
관장하던 성당창이 이곳에 있어 예로부터 성당포 혹은 성포라 불렸습니다. 그
이름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늘날 성당포구 마을이 된 거죠.

성당포구 마을에 자리했던 '성당창' 이란 조창은 효종 9년인 1658년 설치가 됐는데,
조창이 설치되면서 함께 시작된 것이 바로 '성당포별신제' 입니다. 별신제를 드릴
때 하늘과 땅의 기운을 두드리며 울려 퍼진 농악이 '익산성당포구농악' 인데요, 오늘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7-7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마을을 빛내는 자랑스런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마을의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유산이 바로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입니다. 예로부터 마을 어른들이 예를 다해 정성껏 올렸다는
당산제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당포구마을



성당포구마

마을의 자랑, 농악

성당포구농악은 금강변이라는 지리 환경적 영향을 받아 호남좌도농악의 전형성을 바탕으로 인근 우도농악과 충남 웃다리농악의 장점이 갖든, 독자적이면서도 독특한 농악입니다. 다른 농악에서는 잘 세우지 않는 ‘오방기’를 세우고, 오방진을 펼치는 것이 익산 성당포구 농악의 특징입니다.

기본 장단은 열두 마치 장단으로, 판굿의 가락은 다섯 마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50년의 역사를 이어온 성당포구 농악은 마을의 자랑이자,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지금도 마을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전승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을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며 오랜 세월 전승돼 온 성당포구 농악을 알리기 위해 지금도 마을 주민들은 농악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판굿을 열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마을, 익산 성당포구

성당포구마을을 빛내는 또 하나의 보물은 바로 금강의 아름다운 풍경처럼 빛이 나는 넉넉하고 푸근한 인심입니다.

아늑한 돌레길 금강변 생태를 품고 있는 마을의 특성상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했기 때문에 인심 또한 남다른 마을이었고, 지금도 그 따스한 나눔과 베품의 정신이 변함 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와 동네 주민들이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들이 가득한 건강 밥상, 그리고 포근한 잠자리까지 모두 갖춘 관광형 마을로 농촌 관광코스 10선, 트래킹하기 좋은 농촌마을로도 선정된 익산 성당포구 마을!

2021년을 기점으로 이제는 성당포구 마을이 관광하기 좋은 마을에서 살기 좋은 마을로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바로, 마을자치연금과 함께 말입니다.

성당포구마을 좌도농악

#익산 성당포구마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익산 성당포구마을 ‘마을자치연금’ 소개

01 악화일로 농촌의 현실

- 다른 시도의 사례처럼 익산시 역시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경제 침체라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산업역량 저하 +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쟁력과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 이에 농촌 고령 인구의 사회보장 확대와 공동체 사업 활성화, 그리고 농촌인구 유입을 통한 공동체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익산시에서는 ‘마을연금제도’ 도입 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 시에서 이런 방안을 연구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는 바로 정부 정책 때문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지역균형발전의 목표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보고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지역기반형 사회경제체를 육성하는 방안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익산시의 농촌 마을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면서 사회적 경제 방식을 통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마을 자체 내에서 인구회복과 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이를 지역주민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해 대상 마을 선정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 이러한 사업의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관련 기관들이 협력적 관계를 갖고 방안을 모색했고, 그렇게 탄생된 것이 바로 익산 성당포구마을의 제 1호 마을자치연금입니다.



마을자치연금 제 1호 마을을 찾아라!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농촌이 마주한 열악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예상 외로 힘들었던 과정은 바로, 마을자치연금 제 1호 마을을 선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취지가 좋다 해도, 마을 주민들의 동의없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익산 성당포구 마을은, 행정이 선택한 마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을에서 행정을 믿고 선택해준 겁니다.

행정의 신념과 마을 주민들의 믿음이 모여 만들어진 마을자치연금의 밝은 미래를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2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의 필요성

악화일로에 놓인 농촌 고령 인구의 사회적 여건 개선

- 농가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농가소득의 양극화는 농촌 고령 인구의 빈곤과 사회적 소외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단기간 내 쉬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정책과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 같은 맥락에서 노환으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 경제활동 참여 불가에 따른 빈곤, 독거에서 오는 고독감, 사회적 소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노인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통계청, 2018 사망원인통계) 이는 우리 현대사회의 암울한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나라의 분단과 전쟁, 국가의 산업화와 민주화 등 젊은 사람들은 책으로만 봐 온 역사를 몸소 몸으로 겪어온 산 증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평생을 헌신해 온 분들이 스스로 삶을 끝마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자살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절망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그 헌신을 미덕으로 믿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힘겨운 삶과 싸워야 하는 현실.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미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의식을
활용한 농촌
고령인구 사회보장
확대 필요

-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이 느끼는 소속감, 다른 구성원 또는 집단과 관계되어 있다는 느낌, 구성원의 욕구가 자신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Mac Milan & Chavis, 1986)
- 특히 지역사회 내의 공동체 의식은 독거 가구의 고독감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영은, 이정화, 2012)
- 특히 농촌지역의 장점이 아직까지 비교적 강하게 남아있는 ‘공동체성’에 있음을 인식한다면, 공동체의 복원과 활용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도입으로 농촌 고령인구의 사회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관심이 가장 큰 힘

“다각도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노인 정책.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고, 또한 자신들의 삶의 의미와 희망을 되찾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의 관심과 이웃들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띤 마을 사업을 고민하게 됐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모델이 바로 마을자치연금인 겁니다.”

정부
사회보장정책의
지역 기반
재편 움직임

- 2019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년)'은 사회보장체계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으로 효과성·효율성을 향상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공급자 관점에서 분절적으로 제공해오던 기존 사회보장 체계를 수요자 관점의 통합 이용체계로 재편하는 데 있어 지역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는 만큼 지역 내부의 준비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삶의 질 향상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지역단위 정책의
변화 필요

- 특히, 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그동안 저출산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가 인구정책의 새로운 목표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국가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발맞춰 지역의 인구정책 또한 천편일률적인 기계적 대응에서 탈피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체감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 추진으로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기존의 지역 인구정책은 문제 원인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단기대증적 처방에 집중해 왔으며, 지원 방식 또한

대부분 재정보조 방식에 치중된 경향이 다분했던 게 사실입니다.

- 그러나 소득수준과 행복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스털린의 역설(Paradox of Easterlin)'이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물질적 부의 한계효용이 빠르게 체감한다는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재정보조 방식의 사회보장 정책이 시민으로 하여금 정책의 효과성을 체감하는데 더 유리한 방식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체감형
사회보장제도 필요

- 사실 삶의 질은 '소득수준'이나 '일과 삶의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 같은 개별 사회 구성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공정성', '자유', '사회적 유대감'과 같은 '전체 사회의 질(societal quality)' 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성 및 정책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재정보조 위주의 정책 추진 방식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라북도 GR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5.9%이며, 전체 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40%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은 게 현실입니다. (고경환, '복지지출 수준 측정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9)

자발적 형태의
사회보장
확대 장려

-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폭증하고 있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정부·지자체의 재정적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혁신적 대응 방안 모색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상적인 복지정책은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시장과 공동체, 즉 민간이 각자의 강점을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분담하는 체계입니다.
- 제5섹터¹⁾를 중심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체화된 건강한 주체의 육성 자원과 참여와 자치의 경제민주주의 확장으로, 지역사회의 활기와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간이 주도하는 제5섹터 중심의 사업모델 발굴은 새로운 복지모델의 제시와 공동체의 복원, 시민의 사회보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엔 없었던, 새로운 복지정책의 탄생



이번 정책이 가진 가장 큰 의미는 **상생과 조합**이라고 봅니다. 익산시와 마을 그리고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저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안전하고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행정에서도 더욱 힘을 내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한 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모두의 노력과 정성으로 완성해 가는 촘촘한 행복망**. 마을자치연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1) 네트워크된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 제1섹터는 정부·공공기관, 제2섹터는 시장·기업, 제3섹터는 NGO, 제4섹터는 사회적경제주체(협동조합 등)를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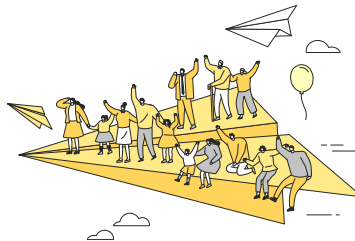
03 왜 마을자치연금인가?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심각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

- 도시지역으로 구분되는 동지역의 고령화율(12.5%)에 비해 비도시지역인 읍지역(15.5%)과 면지역(28.6%)의 고령화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2017 주민등록인구현황)
- 또한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4.7%로, 전국 고령인구 비중 14.3%에 비해 3배 이상 높으며, 독거노인 가구 비중 또한 14.7%로 전국 평균 7.2%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통계청, 2018 농림어업조사, 2018 인구총조사)

반면 농촌고령인구의
노후보장제도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는 게 현실

- 전체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9.8%에 달하는 반면,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4%에 불과 (표1-1)
- 기타 노후보장제도 가입률 또한 농지연금 1.8%, 주택연금 1.4%로 매우 낮게 나타나, 농촌지역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성은 매우 취약한게 현실. (국회예산정책처, 「계층별 사회보장사업 분석」, 2018)



〈표1-1〉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업인 가입자(A)	258,367	260,231	296,782	299,187	319,259	318,205	301,437
20~59세 가입자(B)	1,292,175	1,226,923	1,171,799	1,096,193	1,037,091	956,408	887,038
가입률 (A/B)	20.0	21.2	25.3	27.3	30.8	33.3	34.0
전체 국민연금 가입률	63.4	64.7	65.8	67.1	68.4	69.3	69.6
국민연금 지역 가입률	27.7	27.3	27.0	26.7	26.3	25.6	24.5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 분석-농업인」

주 1 : 농업인 가입자는 어업인과 임의가입자를 제외한 수치

2 : 전체 국민연금 가입률은 20~59세 인구 대비 국민연금 총가입자(직장+지역)의 비중임

3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률은 20~59세 인구 대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비중임

노인부양의
책임은
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 통계청, 「사회조사」 '노인부양 책임에 대한 설문' 에서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는 응답 은 4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 「2018 한국의 성인지 통계」)
- 반면 노인복지에 대한 공적지출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GDP 대비 2.2%, OECD평균 7.7%)이며, OECD내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률(47.2%)과 노인자살률(인구 10만 명당 58.6명)을 보이고 있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왜 손 벌려? 지들만 잘 살면 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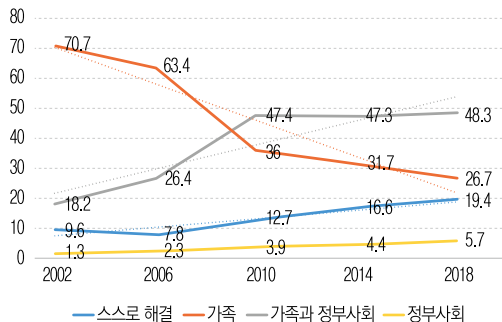
일평생 한시도 제대로 못 자고 애들을 키웠어. 내 땅이 없어도 남의 땅이라고 빌어서 농사짓고 산비탈이라도 일구고, 그래도 먹을 게 없어서 나물 캐다 삶아 먹고 그랬지. 그래서 나는 아들도 가르치고, 딸도 가르치고 개들 잘된 거 그거 하나면 나는 행복하지.

지금은 바라는 거 하나 없어. 골골대는 내 몸이 걱정이지. 나는 아파도 괜찮은데 우리 애들이 마음 고생, 몸 고생 하나니까... 병원도 자주 들락거리니까 병원비에 뭐에 한 번씩 챙겨 주는데, 나는 다 필요 없다 그래요.

뭘 바라고 자식 키운 게 아니잖아. 나는 그저 우리 애들 잘 살면 그걸로 좋아요. 그래도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나라에서 돈도 주고... 옛날엔 생각도 못한 일이지. 애들한테 짐 되기 싫어요. 죽을 때까지...”

효 문화에 기반한
전통적 노인부양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는 익산시민의
고민과 과제가 아닌,
지자체와 정부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림 1-1〉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한국의 성인지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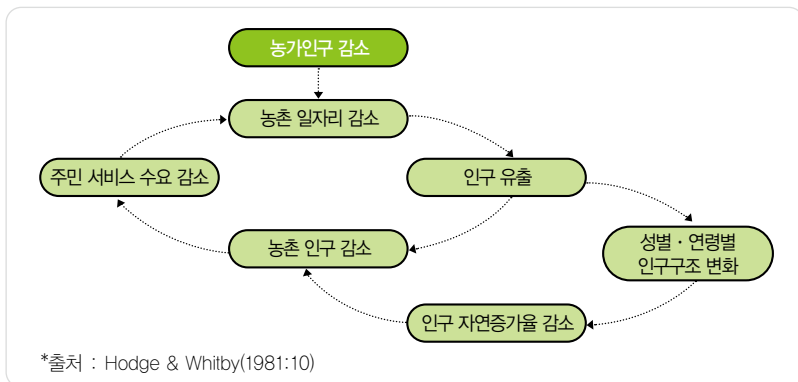
*주 : 점선은 추세선을 나타냄

- 전통적 노인부양 시스템은 효(孝) 문화를 바탕으로 특징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로, 점차 후속세대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3. <http://www.newsis.com>)
-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갖춰진 유럽국가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적자원을 통한 사회보장성 확대가 오히려 자녀들의 노인부양에 대한 윤리적 규범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진바 있습니다. (이미진,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돌봄정책」, 2017.11)

인구유출-일자리
감소-사회서비스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 농촌마을은 지역 공동체의 최소 단위이자 안정적 식량 생산의 토대이며, 국토의 황폐화를 막는 최후 저지선으로써 존속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오랫동안 진행된 이촌탈농으로 농촌마을의 인구구조는 매우 취약해졌으며, '지역 일자리 감소'와 '주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 형성으로 더 이상 헤어나오기 어려운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림 1-2〉 농촌 인구 감소와 연계된 악순환 고리의 구조



단순한 인구유인책에서
탈피하여, 공동체 · 일
자리 · 소득수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형성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일본은 대도시와 지방도시·농촌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농촌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창생법’을 제정하고,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단순하고 기계적인 인구유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에 유입된 인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이들의 역량이 공동체의 펀더멘탈(fundamental)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인구전략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태양광인가?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선택된 겁니다. 청정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수입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마을의 태양광 시설을 전문적으로 살펴볼 전문가 한 분도 고용을 해 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 2, 제 3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역시 지속성과 안전성,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의 특성이 담긴 새로운 사업들이 선택될 겁니다. ‘백촌백색’의 특성을 잘 살려 가장 최선의 방안으로 마을의 수익을 창출해 갈 겁니다.”

04 귀촌 · 귀농인 까지 품은 마을자치연금제도

逆이촌향도 현상의 가속화 전망에 따른 지역의 대응 요구

- 도시화로 인한 이촌향도 추세가 점차 흐려짐에 따라, 2047년에 이르면 서울 · 부산 · 대구 · 울산 등 주요 광역시는 일제히 인구 순유출로 전환되고, 시 · 도 지역에서는 인구가 순유입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시도별 순이동 수 분석결과, 2019.7)
- 逆이촌향도 현상의 원인으로 '수도권 및 주요도시의 높은 주택가격', '출퇴근 가능 거리 확대', '늘어난 노인인구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전원 회귀 확대', '지역에서 가능성을 찾으려는 귀농 · 귀촌인구의 확대' 등이 지목되는 가운데, 이들의 지역 유치를 위한 시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귀농귀촌 이후의 삶과 연계한 인구유치 전략 고려가 필요한 시점

- 귀농 · 귀촌 장려 정책은 농촌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추진된 여러 정책 중 가능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7 귀농 · 귀촌 인구 51만 6,817명, 전년 대비 4.2% 증가)
- 그러나 귀농 · 귀촌 인구 100명 중 7명이 정착에 실패하고 역귀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착 실패의 원인으로 '영농실패', '소득부족' 등이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농 · 귀촌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촌 비즈니스 연계전략과 소득 향상 방안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국가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시민들의 노후 보장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그중에서도 특히, 농촌 내 독거노인과 빈곤 노인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단기간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 이런 점에서 고령 인구의 건강과 더불어 경제적 안전성을 지키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마을의 공동체적 가치를 이용해, 별도의 지역 단위 연금을 운영하면, 고령 인구의 경제난 문제 뿐 아니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된 정책이 바로 익산성당포구에서 첫 걸음을 뗀 마을자치연금입니다.
- 성당포구마을을 시작으로 앞으로 제 2, 제 3의 마을자치연금 사례들이 나오다 보면, 풍성하고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한 걸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 **마을자치연금 재원은?**

마을공동체사업 수익금 50% + 지원시설 수익금 50%

▶ **마을자치연금. 시와 협력기관의 역할은?**

- 익산시 : 기본모델설계, 마을공동체 선정, 재정지원, 사업전반 모니터링
- 협업기관 : 기본모델설계, 컨설팅, 재정지원

▶ **연금 대상자는?**

- 법인에 등재된 만 70세 이상 어르신
- 마을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
- ※ 성당포구마을 전체 주민의 35% 이상 혜택(2021년 기준)



성당포구마을에 풍악이 울리던 날

2021년 7월 14일 '마을자치연금 1호 마을'
준공식 현장



이웃집 손가락 개수도 안다고 할 만큼, '내 집' '네 집' 따로 없이 어울려
살았던 우리.

그런데 어느 순간, 이웃사촌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이웃집의 담장은 절대
넘볼 수 없는 견고하고 단단한 벽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아직은 따스한 정이 살아 있는 시골 마을.

하지만, 그 내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 따스함이 곧 애잔함과 걱정으로 와닿는 게 현실입니다.

빠르게 늙어가는 농촌. 노동력을 상실한 고령의 어르신들에겐 '빈곤 노인'이란 꼬리표가 붙게 되고, 이는 곧 한 소도시의 걱정을 넘어 대한민국이 함께 걱정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농촌에 정착한 귀농, 귀촌인들의 상황도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안정적인 제 2의 삶을 꿈꾸며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돌아온 그들에게 낯선 시골 문화와 경제적인 문제는 생각지 못한 복병으로 다가오기 일쑤죠.

마을에 크고 작은 일이 생겨도, 젊은 손을 빌리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의 작은 소도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너나없이 일손을 보태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몰려들던 사람들. 우르르 몰려다니며 소란을 일으켰던 아이들의 밝은 모습. 순박한 시골 아가씨와 총각의 로맨스는 이제 영영 듣기 힘든 이야기가 됐죠.



더욱이, 요즘은 코로나까지 더해져 작은 시골에서도 웃는 얼굴을 보는 게 참 힘들어졌습니다.

장마 전선이 슬슬 존재감을 드러내던 2021년 7월의 어느 날
익산 성당포구 마을에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기분 좋은 소란함이 작은 동네를 가득 메웠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을 더 초라하고, 슬프게 만들었던 많은 문제들이 하나 둘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 시작점에 마을 분들과 귀한 손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지난 2년여간 행정과 공공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마을자치연금
이날은 마을에 사는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의 첫발을
다지는 귀농, 귀촌인들을 위한 그 획기적인 방안이 드디어 실행으로 옮겨지는 기록적인
날입니다.

습하고 더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자치연금 제1호 마을의 탄생을 함께 한 많은
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습다.



“오늘의 이 감동을 시작으로 익산시는 마을자치연금 연수소를 만들어 전국에서 익산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2호, 제3호 마을자치연금 마을을 조성해 익산 어느 농촌 마을에 정착해도 70세 이후부터는 매월 연금을 받으며 마을공동체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발걸음을 땀 예정입니다.”

‘내 것’이 아닌 ‘우리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일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농촌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당포구 마을에서 시작된 첫걸음이 앞으로의 익산시 발전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국 1호라는 이름이 전국 최고라는 새로운 이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을 기대하게 하고, 공동체의 힘을 느끼게 하는 마을자치연금.
그 위대한 첫 걸음이 오늘 익산 성당포구마을에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익산 마을자치연금 구성에 함께 한 기업 소개 및 인사말

국민연금공단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입니다.

1987년, '전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큰 꿈을 안고 탄생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3년이라는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현재 가입자 2,200만명, 수급자 550만명, 기금적립액 892조원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공단은 다가오는 국민연금 기금 1,000조 시대의 위상과 걸맞는 공단의 사회적 역할을 오랜기간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익산시를 비롯한 여러 협력주체들과 힘을 모아 '마을자치연금'을 익산 상당포구마을에 도입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더불어 사는 사회,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하였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마을에 속한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통해 지역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고 농촌 공동체의 결속력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성당포구마을 1호 모델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가다듬어 더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마을자치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고령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혼란으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그 어느때보다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러한 변화에서도 발전하고 기회를
찾으며 끊임없이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1987년 노령·장애·사망에 대한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21년 현재 가입자 2,200만 명, 수급자 550만 명에게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892조원에 달하는 적립 기금을 운용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급여를 지급하며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
하고, '종합복지기관'으로서 기초연금 및 노후준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김순철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정한울 익산시장님을 비롯하여 협업기관 대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자치연금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농어촌상생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사회공헌 또는 단순기부 형식의 지원이었는데, 마을자치연금은 마을 공동체의 생산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지원 사업으로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전북지역 혁신도시에 이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여러 협업기관이 기관별 각기 추진하는 일회성 사회공헌을 넘어 흩어진 자원을 결합하여 공동의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상호 보완하는 진정한 상생협력의 사례를 도출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야기된 수요와 공급 충격은 과거 경제 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산업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상황 역시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혁신과 상생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ESG경영 등을 적극 도입하여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성당포구마을의 모델을 통해 제2, 제3의 마을자치연금 사업이 더욱 확대되도록 저희 협력재단에서도 농어촌상생기금을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수고하신 익산시 및 성당포구 마을 그리고 협업기관 관계자 모두에게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농어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의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여 공정거래 관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2004.12.27.) 되었습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활력있는 중소기업 경영여건 조성,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및 문화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박지현입니다.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함께 손 맞잡고 추진한 마을자치연금 사업이 지난 7월 첫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은 태양광발전 설비를 활용해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면서 그로 인한 수익을 농촌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자원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뜻깊은 사업에 길을 내고 발걸음을 모아준 익산시장님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치연금 지원 대상 제1호 마을로 선정된 익산 성당포구마을 주민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14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구매상담회 개최는 물론, 이웃 공유 우산 사업, 행복채움 냉장고 지원, 씬머 페스타 축제 등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도 앞선 걸음을 내디뎠 왔습니다.

머지않아 교육원과 전기재해종합분석센터도 도내로 이전, 건립 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와 함께한 마을자치연금 사업은 기왕에 없던 또 하나의 상생협력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첫 삽을 들었을 뿐입니다. 익산이 씨를 뿌린 마을자치연금 사업이 앞으로 성공적인 열매를 거둬 더 많은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3천여 임직원

모두가 그 길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마을자치연금사업의 성공과 익산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전기안전에 관한 연구·홍보 등을 통해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검사·점검
- ▶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홍보 및 교육
- ▶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의
조사
- ▶ 재난의 예방·수습 등 국가
재난관리 업무지원
- ▶ 안전진단 등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한국국토정보공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 LX가 익산시,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고령화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촌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을자치연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어르신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의 중요한 축으로 ‘그린 뉴딜’과 ‘휴먼 뉴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마을자치연금’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환경 친화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선순환은 코로나로부터 포용적 회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촌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내 공공기관들의 노력이 농촌 공동체를 어떻게 되살리는지 제시하는 ‘먼저 보여준 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자 모두 수고하셨다는 뜻에서, 또 의미 있는 출발을 축하한다는 뜻에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모쪼록 이번 책자가 농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어
익산시를 시작으로 전북혁신도시 내 모든 지역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기여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삶이 녹아 있는 모든 땅, 모든 경계의 가치 기준을
정립하고 정확히 측량하여 국토의 기초를 세우고 권리를 정의합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적사업, 지적재조사, 공간정보사업을
토대로 국민 공감형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
정보공사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공간 정보·지적 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 ◆ 공간 정보·지적 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협력
및 해외 진출 사업
- ◆ 지적 측량
- ◆ 지적 재조사 사업



새만금개발공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만금개발공사는 2018년도 출범한 후 현재까지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살기 좋은 전북 만들기를 위한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환경 가꾸기, 자연환경을 생각한 고군산군도 예코섬 챌린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사랑의 꾸러미 나눔 활동 등 지역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한 전국 1호 '마을자치연금' 사업으로 익산시 '성당포구 마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익산시와 8개 협업기관, 성당포구 마을 주민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을자치연금' 사업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지자체와 지역 공공기관의 협업한 모범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마을자치연금'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새만금개발공사 임직원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새만금특별법에 의해 2018년 9월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새만금지역 개발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주도 매립사업과 재생 에너지사업, 관광레저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연금 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마을자치연금’ 전국 1호인 ‘성당포구 마을’의 태양광 시설이 준공되기까지 애쓰셨을 정현울 익산시장님과 8개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8년 경기도 수원시대를 마감하고, 익산시로 지방이전을 완료한 이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며 농촌지역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마을자치연금’ 운영에 농업분야 대표 공공기관이자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서 동참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지역인구의 감소로 전국 읍면동 30%가 사라질 위기라는 언론보도처럼 지역사회에서 고령인구의 관리와 청년층의 이탈은 심각한 문제이자 지역에 속해있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관과 마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을자치연금’은 농촌 마을의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되고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는데, 앞으로도 익산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잘 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도 농업·농촌의 가치와 미래를 창출하는

선도 기관으로서 '농가소득 향상, 국민행복 창출' 을 위해 익산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기술경영을 통한 농산업 육성·지원 전문기관으로 농업 R&D 성과를 농업경영체, 농식품기업 등에 확산·전파하여 농산업의 규모화와 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물론 농업인, 대학과 민간기업, 지자체가 개발한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산업화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 국민행복 창출”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 솔 테 크 닉 스

‘마을자치연금’이라는 뜻깊은 생각을 실현하게 해주신 익산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참여 기관들 및 주민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 도시화와 사회갈등은 필연적이라고 여겨지는 현대에 있어, 주민들 간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와 소외되기 쉬운 농촌사회를 다시금 삶의 터전으로 전환시키는 이 제도의 도입은 현시대에 단점을 극복한 사례이며, 앞으로 변해나갈 우리 사회의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이런 모습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실천한 익산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은 이 시대의 리더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한솔테크닉스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한지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친환경에너지 사업도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일부가 발전수익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지역사회와 이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일부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성원이 발전수익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모델은 마을자치연금이 최초일 것입니다.

익산시의 성공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하여, 현재 우리사회가 가진 지나친 경쟁과 도시 집중화의 단점이 공존과 균형발전으로 변화되고, 사회복지에 큰 틀로 자리 잡길 기원합니다.

한솔테크닉스는?

전기/전자 산업의 핵심인 Power모듈, 무선충전모듈, 휴대폰사업과 친환경 산업인 태양광 모듈 및 발전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본사를 중심으로 오창 공장 (태양광 모듈/LED웨이퍼/LED 응용) 과 진천 공장 (무선 응용/배터리 모듈), 수원 연구소가 자리해 있으며 해외 각지에도 법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우
리
은
행

사회적 가치 실현의 방안으로, ‘익산시 마을자치연금’이라는 뜻 깊은 사업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탈농촌, 지역의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전북에서도 특히 농촌마을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당포구 마을의 태양광발전 자원사업은 소득 안전망 확보 및 고령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은행은 1899년 민족자본으로 만들어진 대한천일은행에 뿌리를 둔 122년 역사의 정통은행으로 긴 시간동안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이란 슬로건 아래 인간사랑, 행복추구, 희망실현이라는 3대 사회공헌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나눔과 녹색경영 실천에 힘쓰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ESG관련 금융정책 수립 및 소상공인·서민금융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성당포구마을 제1호 마을자치연금사업의 성공적인 결실이 제2호, 제3호 마을로 꾸준히 확대되어 공동화와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을 익산시가 되도록 힘차게 응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은행은?

1899년 순수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은행이 되고자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디지털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람개비 길

#익산 성당포구마을 #사진찍기 좋은 곳





마을자치연금 제1호 마을이 운영되기까지

사업 소개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익산시가 이번에 도입한 '마을자치연금'은 전국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그리고 행정과 마을이 힘을 모아, 조건에 부합하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21년 8월 연금이 지급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습니다.

먼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새만금개발공사, 한솔테크닉스, 우리은행 등 8개 참여 기관들이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2년 5개월여에 걸쳐 사업 추진을 가시화했고, 그 결과 현재의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 마을연금제도 사업 추진 검토 : 19. 4. 22.

□ 마을공동체 추진형태 및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 19. 5. 14.

- 내 용 : 마을공동체를 방문하여 주요사업, 매출액, 배당액 등
현장실사

□ 마을연금의 장기 정착을 위한 연구원 단기과제 제출 : 19. 6. 11.

□ 마을연금제도에 대한 원광대 사회경제학과 의견청취 : 19. 6. 12.

- 내 용 : 리빙랩*을 활용한 새로운 마을연금 접근법 제시

* 리빙랩 : 농촌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연구단체, 국민연금 등이 협력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교류의 장을 만들어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 사회적금융 연계를 통한 익산시 마을연금제 도입계획 공유 : 19. 7. 1.

- 사회적금융(임팩트투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활용한
도입방안 제안

□ 사회적금융 연계를 통한 익산시 마을연금 상세계획 논의 : 19. 7. 8.

- 내 용 : 추진일정(단기/장기)별 계획 세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연금지급방안 구상

□ 민간 자체적 시행중인 마을연금제 벤치마킹 실시 : 19. 7. 26.

- 내 용 : 정읍 송죽마을 내 실시중인 마을연금제도 현황확인 및
의견청취

□ 마을연금 도입 계획 1차 안 리뷰 : 19. 8. 27.

- 내 용 : 수행주체별 역할, 기금관리 및 중간지원조직 선정, 연금수급대상 선정 등 협의

□ 마을연금 도입계획 2차 안 리뷰 : 19. 9. 4.

- 내 용 : 마을연금 주체별 역할 및 납입금, 보험료 등 시뮬레이션 결과 검토

□ 마을연금 도입계획 3차 안 리뷰 : 19. 9. 10.

- 내 용 : 마을연금 도입에 따른 예상가능 문제점 검토

□ 마을연금 용역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협의 : 19. 9. 24.

- 내 용 : 제도의 모델 방향성 및 실행타당성 도출을 위한 원광대 연구 용역수행 협조요청

□ 「익산시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개발」 연구용역 : 19. 10.~12.

□ 익산시-국민연금공단 업무협약(MOU) 체결 : 19. 12.

□ 업무협약(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한솔테크닉스) : 20. 11.

□ 익산시-협업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 20. 12.

□ 마을자치연금 전국 제1호 마을(익산시 성당포구마을)선정 및 사업 추진 : 21. 01.

□ 마을자치연금 제1호 마을 현판식 : 21. 03.

□ 마을자치연금 제1호 마을 시설 준공식 : 21. 07.

□ 마을자치연금 지급 : 21. 08.

성당포구마을

#익산 성당포구마을 #마을 풍경





언론에서 바라본 연금사업

“농촌마을 노후보장” …익산시, 전국 첫 마을자치연금 도입(R)

12·23 KCN, 뉴시스, KNS뉴스통신, 뉴스핌, CBS, KBS, MBC, JTV

농촌마을은 고령화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노후 대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이에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고령자들이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마을자치연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령화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농촌마을. 삶의 질 하락을 물론이고 노후 대비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하고, 마을자치사업 수익금을 분배해 주민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늘(23일) 국민연금공단과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태양광 설치 기반과 함께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SYNC 박 정 배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앞으로 익산시에서 시작하는 마을자치연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대상에 제한은 있습니다. 농촌체험 등 마을자체 사업을 보유하고 최근 3년 수익이 1천5백만 원 이상 인마을 공동체 법인입니다. 마을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주민들로 이뤄진 법인 구성원에게 사망 시까지 월 10~15만 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INT 정 현 율 익산시장

“태양광을 비롯해서 각종 수익이 일정 기간 적립 되면 그 재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을자치연금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는데 첫 번째 대상으로 성당포구 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선정

됐습니다. 이곳 마을에는 내년 3월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며 수익금이 분배될 예정입니다. 시는 시범 운영을 성공시켜 지급 대상을 확대 한다는 계획입니다.

INT 정 현 율 익산시장

“성공 사례가 만들어져야 참여하는 기관도 더 늘어나고 수혜자도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에 마을자치연금을 전반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농촌마을 노후보장의 성공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KCN NEWS 변한영입니다.



20.12.24

전국 최초
마을자치연금
도입 협약

21.03.29

현판식



익산시 전국 제1호 '마을자치연금' 추진

전국 최초 농촌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인 익산 '마을자치연금'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26일 제1호 사업체법인인 성당포구마을에서 공공기관 기업 마을공동체와 함께 마을자치연금 전국 제1호 마을자치연금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정현율 시장과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기획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김민 사회적 가치추진단장, 한국국토정보공사 광희도 경영지원실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김병은 총괄본부장, 새만금개발공사 김주호 기획조정실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조태용 농어촌상생기금본부장, 한솔테크닉스 박명철 상무, 우리은행 윤정근 영업본부장 등 각 기관의 관계자가 함께하며 제1호 마을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했다.

시는 이날 현판식을 시작으로 후속 마을 발굴과 안정적 마을자치연금 확보방안 등을 담아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현율 시장은 "고령화되는 농촌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을 제2, 3의 익산형 연어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겠다." 고 했다.

“노인에 월 10만 원 지급”…전국 첫 마을자치연금 마을 탄생(R)

7-14 KCN,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KNS뉴스통신, 뉴스핌, CBS, KBS, MBC, JTV, YTN

우리나라 첫 마을자치연금 준공식이 익산 성당포구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마을 자체 사업으로 얻은 수익이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으로 지급돼 지자체의 복지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 인구 유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익산 농촌지역.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은 성당면 성당포구 마을에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마을자치연금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유입을 목표로 하는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입니다. 14일 오후 성당포구 마을 주민과 정현울 익산시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자치연금 전국 1호’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SYNC 정 현 울 익산시장

“농촌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농촌 공동체를 살리고 무엇보다도 마을자치연금은 공동체를 통한 세대간의 연대와 나눔의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자치연금의 핵심은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는 노후 소득 복지. 연금 조성을 위해 총 1억 5천만 원이 투입돼 금강 체험관과 슬로푸드 체험관에 총 7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박, 캠핑 등 농촌전통 테마사업의 수익도 연금 마련에 이용됩니다. 마련된 연금은 성당포구에 5년 이상 거주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돌아갑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성당포구 마을 주민의 35%에 해당하는 28명이 연금 혜택을 받습니다.

INT 이 중 수 성당포구 마을 주민

“우리 마을에 마을자치연금이 시작되니까 타지에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 받은 동네라고 생각하고 참 좋습니다.”

자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법인들이 발굴되면 마을자치연금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NT 윤 태 근 성당포구 마을 이장

“벌써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오실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효과라고 봅니다.”

전국에서 첫 선을 보이는 익산 성당포구 마을 자치연금.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와 농촌의 인구 유출을 잡는 단비가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N NEWS 하준입니다.



21.07.14

준공식

21.08.30

‘마을자치연금’
확대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제2호 발굴 추진

익산시가 농촌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마을자치연금을 확대 한다.

시는 협업 기관과 함께 마을자치연금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익산형 노후소득보장체계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자치연금 1호 마을에 이어 2호 마을 발굴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 복지지원사업에 참여해 농어촌상생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ESG 실천에 적합한 모델인 익산시 마을자치연금을 벤치마킹해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어촌 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호 마을의 순조로운 발굴과 사업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업무협의를 추진해 왔다. 사업이 순조롭게 유지되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최대 1억원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는 앞으로 2호 마을 선정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선정 과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장님의 ‘속터뷰’

익산 성당포구마을을 찾은 사람들에게 마을 곳곳의 명소와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윤태근 이장. 그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이장님 맞아요??”



윤태근 (익산 성당포구마을 이장)

한때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가족들이 대대로 터전을 잡고 살아온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윤태근 이장. 어르신들에게 등 떠밀려 맡게 된 이장이란 직함이 때론 버겁기도 하지만, 오늘도 그는 종횡무진 긴 다리로 마을 곳곳을 누비며 마을 어르신들의 안부와 관광객들의 편의를 챙기고 있다.

안녕하세요? 성당포구마을 이장, 윤태근입니다.

저는 경기도 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인 익산 성당포구마을로 다시 돌아와 이렇게 이장까지 맡게 됐는데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느낀 점은, 마을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이웃들이 있었고, 많은 또래 친구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골은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젊은 사람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제가 시골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서 뭘 먹고 살겠냐며 저를 만류했는데, 사실 저도 그런 걱정이 아예 안 들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 내려와 생활해보니 한 달에 쓰는 생활비부터가 도시에서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그만큼 지출도 줄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생각만큼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쫓기듯 살던 도시 생활에 비해 몸도 마음도 많이 편해졌다는 점이 고향으로 돌아와 얻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어릴 적, 그 누구보다 커 보였고 또 고왔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이 쇠약해 지신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홀로 지내는 분들이 많아 신경써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어르신들을 챙기고, 마을의 대소사를 쫓아다니다 보니 이장직까지 맡게 됐는데요, 늘 격려해 주시고, 열심히 도와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인 생각을 했을까?' 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마을은 공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이 있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저도, 마을 어르신들도 선뜻 이 사업을 받아들이긴 어려웠을 겁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 마을 총회를 여러 차례 열어 마을 분들의 의견을 모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이 조금은 분분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마을 분들의 100% 동의 하에 이 정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021년 8월을 시작으로 우리 마을에 실거주하는 주민 80명 가운데 어르신 스물 여덟 분이 정기적으로 연금 10만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내년엔 한 분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든든하다, 큰 힘이 된다며 아주 기뻐하십니다.

한 가지 걱정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이전처럼 마을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지만 시설 운영과 체험 확충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마을자치연금이 계속 확대돼 나갈 텐데 마을의 특성을 잘 살린 아이디어를 채택해 연금을 받는 분들도, 받지 않는 분들도 모두 부담없는 여건 속에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원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기반으로 성당포구 마을이 돈 주는 마을, 모두가 행복한 마을로 거듭나길 그 누구보다 염원하고 있습니다. 노후걱정없이 주민이 행복한 마을,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는 제 자리에서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선진마을로 거듭날 익산 성당포구 마을의 기분 좋은 변화를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경터뷰’



김노영 어르신 (84세)

“

22세에 남편을 만나
성당포구 마을로 왔어요.
아직도 그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사람들로 북작북작했던 그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을 만나 여기서 가정을 꾸렸어요. 내 나이 스물 두 살 때였으니까 정말 오래 됐지.

처음 이 마을에 오던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어찌나 사람들이 많고 고깃배가 많이 들어오는지... 여기서 배를 타면 내가 살았던 군산으로도 갈 수 있었어요.

남편은 고깃배를 탔는데 먼 바다로 나가면 보름씩도 바다에 있다가 오고 그랬어.

그러면 나는 생선을 받아서 저잣거리에 장이 설 때마다 나가서 팔고 그랬지.

그것만 한 줄 알아? 논밭에 모도 심고, 식당도 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발 동동 거리면서도 나이 먹는 줄도,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애들 먹이고 가르치고 하려면 힘들다고 투정할 새도, 앓아 누울 새도
없지.

우리 집은 아직도 식당을 그대로 하는데, 나는 밥 값 많이 받는 식당은
싫어.

그냥 누구라도 와서 부담없이 맛있게 먹고, '와~ 배부르다' 하고 갔으면
좋겠어.

지금이야 밥 굶는 사람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다들 배고파서 서러웠어요.
그 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한 상 가득 차려주고 5000원만 받아.

다른 집이랑 비교하면 어떨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것도 정말 크고 귀한
돈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마을 젊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마을 어르신들한테
한 달에 10만원 씩이나 큰 돈을 준다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노인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자식들한테도 그랬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잘 챙겨주니까 엄마는
걱정도 말라고... 나는 그게 그냥 돈이라고 생각 안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고, 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돈으로 뭐할지는 모르겠지만
차곡차곡 잘 모아 보려고 해요.

그 재미도 있겠지..."



“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
돌아보면 다 고마운 일이죠.
좋은 마을에서 이렇게 노년까지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서...

조점구 어르신 (87세)

나는 이 마을에 자리잡은 지가 50년이 됐어요. 그 때는 말야, 이 마을이
뱃길이 좋아서 농사용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도 다니고, 고깃배도 많이
다녔지.

나는 건축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랬는데 다른 데를 다 다녀봐도 여기만큼
좋은 마을이 없어. 다른 건 몰라도 자연재해가 없거든. 비도 적당히 오고,
눈도 다른 데보다 적게 내리고, 농사 짓는 데는 아주 최적의 땅이야.

그 때는 100가구도 넘게 살아서 마을이 북적북적했지. 사람 수로 따지면
300명이 넘었을 거야.

우리 5남매 다 여기서 잘 커서 그냥 좋아요 나는.
거기에 이제 나같은 사람들 떠박떠박 연금도 준다니까 얼마나 든든해.
고마운 마음 뿐이지.

우리 애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도 고맙고 이 나이
먹어서까지 이웃들과 잘 지내는 것만도 큰 복인데 이렇게 어른들까지
일일이 챙겨주고... 전국 팔도에 우리 마을 같은 곳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하나도 없지!

“

나는 그냥 이 마을이 좋아요, 왜냐고?
결혼하고 시댁에서 12식구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랑
이리로 나와 살았거든.
그러니 그냥 좋지? 안 그래?



김종녀 어르신 (78세)

장남만 업고 이 마을로 나왔어요. 시댁식구 열 두 명이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식구는 많지 먹을 것은 없지, 애들은 하나 둘 태어나는데 집은 좁지... 쌀 두가마니를 한 달에 다 먹었으니 알 만 하지.

남편은 공사 일 한다고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나 혼자 여기서 진짜 억척같이 살았어. 함열에서 자전거 사다가 타지도 못하는 거 꾸역꾸역 배워서 타고 다니다가 논두렁으로도 빠지고..

다른 것보다, 그때는 잠을 한시도 편하게 못자고 살았지. 그래도 내가 억척떨고 살아서 우리 5남매는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도 지들이 갔어. 기특하고 고맙지.

힘들어도 우리 애들 건강히 바르게 잘 큰 거 그거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위하면서 살았던 거... 그게 참 고마워.

나는 젊어 그렇게 고생을 해서 지금 수술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허리 수술까지 다시 해서 몸이 이렇게 불편해. 그래도 마을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 연금을 주니까 고맙고, 좋아.

다들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 하나같이 병원비로 쓰겠지 만은, 그래도 이렇게 큰 도움을 주니 고맙지. 자식들한테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니들 엄마 병원비 줘” 이런 소리 나는 절대 못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마을 연금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어~~



“

우리 마을은 집도 많고
사람도 많았지. 친구도 많았어요.
속 얘기 나누고 웃다 보면
그냥 그렇게 힘든 것도
다 잊혀지고 그랬어...

이동배 어르신 (88세)

성당포구 마을을 주름잡은 6공주 중의 한 분, 이동배 어르신.
마을 곳곳을 친구들과 몰려 다니며 고무줄 놀이도 하고, 빨래터에 웅기 종기
모여 남편 흥도 보고 했던 기억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우리 때는 다 고생했지. 모 심다가 애기 낳고 그랬으니까 밤낮 없이 일하고
애들 키우고 그랬어. 그래도, 친구들 있어서 재미 있었지. 어릴 때는 같이 놀러
다니고, 커서는 빨래 하면서 남편 흥도 보고... 그게 다 재미야...”

팍팍했던 살림살이. 그랬기에 가족 같은 이웃들과의 소중한 일상이 그녀에게
무엇보다 큰 활력소가 됐다.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많이 놀러도 다녔어요. 술도 마시고, 풍물도 하고...
우리끼리 그렇게 잘 지내니까 사람들이 다 그랬어... 마을이 참 좋다고,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내도 남 흥보고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지금도 서로 챙기려고 난리지. 이제 우리는 연금도 차곡차곡받으니까 그 돈으
로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사 먹고 그래야 겠어요. 귀한 돈이니, 아껴서 써야지,
어떻게 쓰나 어떻게 쓰나 싫어요 나는”

유난히 배고프고, 추웠던 나날.

그러나 마음만은 부자였던 이들이 함께 웅기종기 모여 서로에게 온기가 돼 준
익산 성당포구마을. 그분들이 기억하는 ‘함께’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시간
들에 마을자치연금이 작은 활력소이자 위로가 되길...

“

나는 여기가 고향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고향 마을에 집이
 100호가 넘었어요.
 배도 많이 들어오고 활력이 돌았죠.
 지금은 남은 집이 50 호 쯤 있나...



이종수 어르신 (80세)

나는 우리 마을 이야기 하면 잊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인심이 좋다는 거예요.
 도둑도 없어서 항상 문을 열고 살았어.

그리고, 지형이 좋아서 그런지 비도 적당히 오고, 농사도 잘 됐어.
 나도 여기서 농사 지어서 우리 자식 넷 다 길렀지.

우리 애들 클 때는 말이며, 여구에 초등학교가 세 개가 있었는데 학교 마다
 학생 수가 500명이 넘었던 말야. 근데 지금은 성당 초등학교 하나 남았어.
 애들이 그렇게 없어...

나랑 마을 사람들의 낙은, 경로당에 모이는 건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리
 지도 못하고... 시골은 경로당 없으면 할 게 없어.

나는 마을 사람들이랑 풍물도 많이 하러 다녔는데 언제나 다시 모여서
 신나게 칠 수 있을지...

우리 마을은 제를 정성껏 올리는데, 올해는 11월이니까 그 때나 치겠네.
 여기가 배가 다니니까 무사히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빌고, 농사 잘 되게 해
 달라고 빌고 그랬지.

그나저나 연금 들어왔다고? 아이고~ 농협가서 확인해 봐야겠네.
 손주들 용돈 줄꺼여. 나는 그것들이 여자 친구를 데려오고 해도 아직 애기 같아.
 용돈도 아직은 내가 줘야지. 늙은이한테 이런 기쁨을 줘서 좋아, 너무 좋아.



“

저는 고향이 강경이에요,
강경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대한민국 3대 포구라 그래서 얼마나
발달이 돼 있었는지...

김영순 어르신 (78세)

나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위로 언니가 넷 있었거든요?
언니들이 너는 농사 짓는 집으로 시집가라, 시집가라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남편) 만나 이 마을로 시집을 왔는데, 세상에 나는 결혼해서
불도 처음 때봤어. 지금도 누가 시집와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물으면 나는
고민도 안 해. 불 때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밤마다 죽으로 들어가는 기분인 거예요.
세상에 전기도 안 들어와서 호롱불을 켜놓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리고 수도도 늦게 들어와서 저기 작은 빨래터 물을 길어오는데 마을 사람
들이 많으니까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뜯 눈으로 있다가 새벽에 물 길어
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마을에 정 붙이고 산 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요.
서로 헐뜯거나 그런 것도 없이 마을 공동체가 진짜 잘 돼 있어서 서로 의지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전통들이 있어서, 우리가 익산에서도
처음으로 이렇게 마을자치연금 1호 마을이 된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마을에 온 사람들이 경치도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당산나무도 좀 보고, 누구라도 안 좋아 할
수가 없는 마을이에요 우리 성당포구 마을은.”



“

내가 왕년에 이 마을 이장을
8년이나 했어. 나중엔 사람들이
더 하라고 더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했더니까, 진짜여~~

이수철 어르신 (88세)

아내가 밤새 다듬었다는 고추 포대가 먼저 반겨준 이수철 어르신 댁.
나는 딸만 여섯을 낳았다며 육공주 집이여~ 하며 허탈히 웃던 할아버지가
문득,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데리고 안 다닌 병원이 없었어. 근데 네 살
되던 해 그냥 가버리더라고. 허망하게도...”

성당포구 마을에서 나고 자란 88년의 세월.
어르신에게 이 집은 말 그대로 삶의 모든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공간이다.

“나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여기로 쌀을 가져와서 보관했다가
수레로 실어서 옮기고... 그래도 다행히 일본인들이 이 마을로는 안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는 큰 고초 안 겪었지.”

이렇다 할 만큼 큰 자연재해도, 일본인들의 횡포와 억압도 심하지 않았
다는 익산 성당포구마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이 마을에 선정비도 많았어요,
 옛날부터 여기에 곡식 모으는
 창고가 있었잖아?
 그 일 잘했다고 나라에서
 세워주고 그런 거지.



삶이 결코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일평생 남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을 일들을 무던히도 많이 겪고, 이겨낸 어르신들. 지나간 시간이기에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 할 수 있는 무용담이 됐을 뿐입니다.

“이 마을에 선정비도 많았어요, 옛날부터 여기에 곡식 모으는 창고가 있었잖아? 그 일 잘했다고 나라에서 세워주고 그런 거지. 근데 그 많던 게 다 어디 갔는지 알아? 땅에도 묻히고 징검 다리로도 쓰이고 누구 집 지을 때 거기로 들어가기고 하고...”

멀게는 일제 강점기부터,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이제는 노년의 때에 다다른 어르신들. 그분들의 평안한 노년에 마을자치연금이 작지만 큰 힘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딴어요? 누구나 지금이 제일 힘들고 고되지. 나는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가 싶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 위해 돈 쓸 데도 많은데 이렇게 마을 사업도 하고 지원도 받아서 늙은이들을 챙기고... 나도 보람있는 데에 이 돈 쓰고 싶어요. 우리 자식들, 손주들 용돈도 한 번씩 주면서...”




우리 농촌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농촌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지역의 인구 유출이 고착되면서 더욱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우리 농촌.

이에 농촌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마을자치연금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민관이 함께 공동 추진한 전국의 첫 사례였던 익산 성당포구
마을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할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려고 합니다.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통해 성당포구마을에 3가구가 전입을 준비하고 있고, 마을 어르신들의 삶에도 희망적인 에너지가 감도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마을자치연금 2호, 3호 마을 발굴을 위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우리 농촌의 풍경을 바꿀 혁신적이고 기분 좋은 소식을 다시 또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농촌. 이제는 마을자치연금으로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기대합니다. 마을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피우는 희망의 메아리가 1호 마을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기대해 봅니다.

전국
최초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백서



문의처

성당포구마을 | 063. 862. 3918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부 | 063. 713. 6898

익산시청 농촌활력과 | 063. 859. 7214

발행처

익산시청 농촌활력과

전북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발행일 2021년 9월